

강진군, 결혼이주여성 새로운 도전 지원

이미용·패브릭 공예·발마사지 과정 16명 수강생 '누구나창업아카데미' 3개월 교육 마치고 수료식

강진군이 지난 9일 누구나창업아카데미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전면 누구나창업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이·미용, 패브릭 공예, 발마사지 등의 분야에서 총 16명의 수강생이 배출됐다.

'누구나창업아카데미'는 2019년 상반기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성전면 예방로에 위치한 (구)위스타트클로벌아동센터 사무실을 전면 리모델링해 이·미용실, 발마사지실, 패브릭 공예 작업실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했다.

올 5월부터 3개 과정의 창업 전문 컨설팅 교육을 시작했다.

컨설팅 교육 이수자들은 강진군에서 시행한 희망문화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이다.

각 과정별 기술 테크닉은 물론, 손님을 편안하게 대하는 방법,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기법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의 교육을 이수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영업 매장을 방문해 현장 컨설팅도 받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기술을 배우려는 뜨거운 열의로 낙오자 없이 16명 모두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강생 16명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기념촬영 후 패브릭 공예실에 전시된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보여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성전면 주민을 초청해 이·미용 과정 수강생들이 머리 염색을, 발마사지 과정 수강생들은 발마사지를 정성껏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마사지 과정 수료생 박미에 씨는 "항상 열심히 가르쳐 주신 강사선생님도 감사하고, 이렇게 교육을 제공해 준 강진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발마사지 봉사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로 막막했

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배운 기술이 헛되지 않도록 그 분야에서 성공하여 각 가정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력 11개 공모 선정·404억 원 확보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해양치유도시 완도' 비전 추진

완도군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주력한 결과 11개 공모사업에 선정, 총 404억 원을 확보하여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해양치유도시, 완도'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완도 중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지역활성화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이다.

완도 중앙마을(중앙·주도·서생·용암리) 도시재생사업(134억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중앙시장 협력상가 및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행복어울림센터 신축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40억 원) 선정으로 30년 동안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 이전·신축됨에 따라 폐 공간이 된 구완도 문화원을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1층에는 어린이 상상놀이터, 2층은 감성치유 놀이터, 3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야외 테라스와 별빛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항동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생활여건 개조사업(42억)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 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소통길 개설, 하수도 정비 등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시설과 노후 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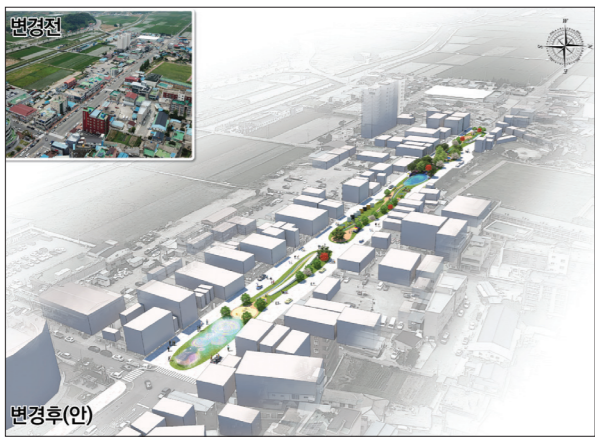
노두리의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25억 원)은 골목 확장, 고령친화 보행환경 개선, 생활우수 악취 집수리 사업, 행복어울림센터 신축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영수기자

진도군, '무형문화와 굿' 특성화로 문화경제·전통시장 활성화

100억원 투입...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아리랑 굿거리 조성 사업 착수



진도군이 보유한 불투지인 '무형문화와 굿'을 특성화해 진도 문화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은 올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에 무형문화와 굿을 특화해 진도 문화 경제를 활성화하

기 위한 '아리랑 Good(굿)거리 조성'이 선정됐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라남도 자체 지원을 통해 시군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진도군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진도 전통·문화 예술의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를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

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도 조급시장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장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함께 ▲아리랑 Good(굿) 공원 조성 ▲Good(굿) 갤러리 콘텐츠 개발 ▲조급시장 청년 창업물 등을 조성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기획하고 협업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쇠퇴해가는 지역을 자생력이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물 걱정 끝"...맑은물 공급사업 박차

상수도 사업비 1040억원 확보...2025년까지 전역 상수도 공급

해남군은 2025년까지 관내 전 지역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은 8개로, 총사업비 1,040억원을 확보해 상수도 미공급 면단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한편 노후 상수도 시설물의 대대적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삼산면 일부와 화산면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41억원을 투자, 현재 관로를 매설 중으로 2022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중인 마을에서 수량 부족 및 수질악화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도 즉시 상수도 공급도 가능해져 식수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신규로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으로 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현산지구 15개 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에도 40억원을 확보해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옥전면은 해남교도소와 우리중앙병원, 농공단지 및 주변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배수지 및 상수관로 매설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면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옥전, 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으로 2021년 설계비 13억원을 확보,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 공사 착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하는 등 본격 추진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 대덕읍, 자연마을회에 고유번호증 발급 컨설팅

장흥군 대덕읍(읍장 김철호)에서는 임의단체인 마을회를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14개 마을회를 국제기본법에 근거한 법인단체로 등록완료 하였다

고 밝혔다. 마을이 생성되고부터 존재해온 마을회는 지역공동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체임에도 영농회를 마을회와 겸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

화되지 않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 발견한 대덕읍은 정관(안)을 이장님들께 제공하여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짓게 하고, 정관에

의해 고유번호증 등록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임시회의 개최를 도왔다.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까지 세심하게 안내하는 등 일체의 서류를 갖추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춰있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